

1300년 전의 고대 산성으로  
타임슬립!

# 기쿠치성

(鞠智城)



●문의처



구마모토 현립 장식 고분관 분관

역사 공원 기쿠치성·온고창생관

〒861-0425 구마모토현 가모토군 기쿠가마치 오아자 요나바루443-1

TEL0968-48-3178 FAX0968-48-3697

<http://www.kofunkan.pref.kumamoto.jp/kikuchijo/>

E-mail [onnkosousei@pref.kumamoto.lg.jp](mailto:onnkosousei@pref.kumamoto.lg.jp)

# 고루(鼓樓)에서 북소리가 울리며 병사



기쿠치 성터는 야마가시 지역에까지 펼쳐진 드넓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굴 조 발견되었습니다. 1994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

## 하이즈카 (灰塚)

유일하게 성 전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동시에 북쪽의 야호가타케산, 남쪽의 긴포잔산, 동쪽의 아소 외클산 등 360도 대형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높직한 산입니다. 테이블과 벤치가 마련된 전망대도 있고, 그 정면에는 '부동암'이라 불리는 큰 바위가 바라보입니다.



## 조자야마 전망광장 휴게소

야마가시 기쿠키마치요나바루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요나바루 조자 전설'에서 유래된 높직한 산에 위치한 휴게소입니다. 나라시대 (710~794)의 신덴(寢殿)풍으로 세워진 건물로 그 주변은 전망광장으로 정비되어 휴식 공간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온고창생관(溫故創生館)

기쿠치성이 세워진 시대와 그 역할에 대하여 전시와 영상을 통해 배우는 시설입니다. 2층에는 공원 전체를 감상하며 쉬 수 있는 코너도 있습니다.

개관시간 / 9:30~17:15

(입관은 16:45까지)

휴 관 일 / 월요일 (단,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12월 25일~1월 4일

입 관 료 / 무료



# 가(兵舍)와 미창(米倉)이 즐 지어 선—고

기쿠카마치요나바루 지역을 중심으로 기쿠치시 호리키리  
 정터입니다. 내성(약 55ha)과 외부둘레 지구(약 65ha)로  
 이는 196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72동의 건물터가  
 이는 구마모토현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복원  
 한 2004년 2월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무  
**이타쿠리**  
 전체크기 폭 6.9  
 5.5m×약 7.2m의  
 마루)식 건물로 기  
 \*오토시하메(기  
 특징입니다. 지붕은

기쿠치성(서기698년경)상상도

촬영은색 글자  
 자료제공: 기쿠치시청,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 대의 낭만에 잠긴 기쿠치성(鞠智城)



물을 보관했다?

## 판자 (板倉)

m, 길이 12.0m에 내부 약 누마루(다락처럼 높게 만든 층에 판자에 판자를 끼우는 위닝기) 기법'의 벽이 가야부키(초가지붕)입니다.

저수지 터



관리동 건물



사키모리(북부 규슈를 지키던 병사)들이 기거하고 있었다.

## 병사 (兵舍)

전체크기 폭 7.8m, 길이 26.6m에 내부 약 5.5m×약 18.2m의 건물로 벽은 흙벽, 바닥은 흙마루로 지어졌습니다. 지붕은 가야부키(초가지붕)이며, 벽에는 밀어 올리는 방식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50명의 병사가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식량을 보관했던

## 미창 (米倉)

전체크기 폭 7.2m, 길이 9.6m에 내부 약 5.5m×약 7.2m의 누마루(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식 건물로 단면이 삼각형인 재료를 세로와 가로로 교대로 쌓아 올린 벽인 '아제쿠라 양식'이 특징입니다. 지붕은 가야부키(초가지붕)이며, 건물 가장자리에는 쥐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네즈미가에시'라 불리는 판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팔각형 고루 (鼓樓)

일본내 고대 산성으로서 최초로 발견된 팔각형 건물입니다. 3중 구조의 건물로 직경 90cm의 축을 중심으로 기둥이 세겹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높이는 15.8m로 지붕에는 총중량 76톤의 기와가 이어져 있습니다. 한국 서울 근교의 이성산성에서 동일한 양식의 건물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건물은 복원 정비가 끝남

의 복원 엔서 일러스트 板倉

# 왜, 기쿠치성(鞠智城)은 만들어졌는가?



기쿠치성은 7세기 후반(약 1300년전)에 야마토국이 세운 산성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정치적 정세는 매우 긴박하였습니다. 일본은 우호국이었던 백제의 부흥을 위해 지원군을 파병하였지만 663년의 '백촌강(白村江) 전투'에서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여 일본이 직접 전투의 무대가 되는 위협이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규슈에는 지방 행정기관인 다자이후(太宰府)를 지키기 위해 오노성(大野城: 후쿠오카현), 기이성(基肆城: 사가현), 가나다성(金田城: 나가사키현)이 축성되었고, 기쿠치성은 이 성들에 석량, 무기 및 병사들을 보급하는 지원기지였습니다.

## 고대 산성 가운데 일본 최초의 목간 출토

### 목간(木簡)은 역사를 말한다...



목간이나 건축 자재가 발견된 저수지 터

저수지 터는, 죠자바루(長者原) 지구 북서부의 끝까지 부근에 있으며, 넓이가 약 5,300㎡입니다. 목간이나 건축 자재 등의 귀중한 유물이 수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저수지 터에서 출토한 목간에는 「秦人忍<sup>米?</sup>□五斗」의 문자가 보입니다.

하타히토(秦人)의忍이라고 하는 사람이 쌀 5두(당시의 1섬)을 세금으로 납품했을 때의 꼬리표입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기쿠치성은 단순한 군사 시설이 아니고, 세금 등을 모으는 행정적인 기능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수지 터에서 출토한 목간

### 현환와(軒丸瓦: 지붕 처마의 기와)

건물터에서 발견된 현환와(軒丸瓦: 단판8일 연꽃문)는, 약 1,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구마모토현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고대를 그리워하는 기쿠치성의 실범  
**기쿠치성 온고창생비**  
 (溫故創生碑)

1996년에 기쿠치성의 실범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중앙에 사키모리 (防人 : 간토지방에서 징발되어 북부 규슈의 오지를 경비하던 병사) 전원에 사키모리의 아내와 아들, 서쪽에 축성을 지도한 것으로 생각되는 백제의 귀족, 동쪽에는 아호가다케 (八方ヶ岳)에 기도를 드리는 무녀, 북쪽에는 한 쌍의 봉황이 서 있습니다.

대좌에는 만엽집의 사키모리의 노래(3수)와 성의 역사를 해설한 6매의 부조가 걸려 있습니다.



**기록에 있는 기쿠치성의 기사**

續일본기	文武2년(698년)	(정부가) 다자이후(大宰府)에 지시해 오노(大野), 기이(基肄), 기쿠치(鞠智)의 3성을 수리했다.
文德실록	天安2년(858년)	(2월) (6월)기쿠치성원(院) 무기고의 북이 저절로 울리다. (6월)기쿠치성의 不動倉(비상용으로 비축한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11동 불타다.
3대 실록	貞觀17년(875년)	까마귀 떼가 기쿠치군 창고 건물의 락풀(葦草)을 물어 뜯었다.
	元慶3년(879년)	기쿠치성원(院) 무기고의 북이 저절로 울리다.

**기쿠치성-현립 장식 고분관에 가 보시죠!**



この電子書籍は、기쿠치성(鞠智城) 1300 년 진의 고대 산성으로 타임슬립!  
を底本として作成しました。閲覧を目的としていますので、精確な図版などが必要な場合には底本から引用してください。

底本は、熊本県内の市町村教育委員会と図書館、都道府県の教育委員会と図書館、考古学を教える大学、国立国会図書館などにあります。所蔵状況や利用方法は、直接、各施設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書名：기쿠치성 (鞠智城)

1300 년 진의 고대 산성으로 타임슬립!

発行：熊本県教育委員会

〒862-8609 熊本市中央区水前寺 6 丁目 18 番 1 号

電話：096-383-1111

URL：<http://www.pref.kumamoto.jp/>

電子書籍制作日：西暦 2024 年 7 月 20 日